

왕의공원 프로젝트 국제교류 위해 일본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 이끄는 대표단, 6~10일 지속 우의 다짐·글로벌 관광도시 혁신전략 모색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공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대표단이 왕의공원 프로젝트 등 전주 글로벌 관광도시 혁신전략 구상 등을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6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가와카쓰 헤이다라 현지사 등 시즈오카현 관계자들과 상호협력의 주제를 한 환담을 나눴다.

우 시장은 첫날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일본 시즈오카현과 시즈오카시정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우 시장은 가와카쓰 헤이다라 시즈오카현지사와의 지난 2일 전주에서 막을 내린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우의를 다짐할 예정이다.

이후 시즈오카현의 제도사인 시즈오카시를 방문해 난바 다카시 시즈오카시장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계기로 올 해 시즈오카시와 양 지역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교류를 비롯해 청소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

적인 국제교류에 대해 논의해왔다.

전주시 대표단은 이어 7일에는 자매도시이자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인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무라이마 다카시 시장과 다카 마코토 시장의 만찬을 20년 교류사를 회고할 예정이다.

특히 우 시장은 오는 8일에는 교토로 자리를 옮겨 지난 199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니조성과 1869년 일왕이 도쿄로 가기 전까지 기거하며

왕궁 역할을 했던 교토 고소를 방문해 왕의공원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다.

또한 9일 일본 공내청 산하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연구원 나라문화재연구소를 찾아 평성궁 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예정이다.

나라시는 나라 시대 헤이조쿄(平城京)가 세워졌던 일본의 고도(古都)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도시이자 연간 1300만명이 방문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그동안 글로벌 브랜딩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교류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왕의공원 프로젝트 등 주요사업 추진과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세계 도시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 개최

8~9일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특강·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전주시가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행사를 연다.

시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기념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023년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인권의 시선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전주를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권공감 문화행사의 첫날에는 올해 상반기에 임용된 전주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공감 행사가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전북경찰청 비폭력대화 강사인 임대성 경위의 '조직적응 및 관계형성을 위한 비폭력 대화법'을 주제로 한 특강과 더불어 인권 힐링 체험 프로그램인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천연 수분크림 만들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둘째 날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가 강사로 초청돼 '재심,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인권 특강 및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공으로, 현재 박준영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강과 시민과의 대화는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지원하며, '인권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로 활기 불어넣어

7개 골목상권서 소비 촉진 행사·문화예술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전주시가 두 달 동안 전주 곳곳에서 펼쳐진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골목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주지역 7개 골목상권에서 진행된 제3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가 두 달 동안 전주 곳곳에서 펼쳐진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4일 혁신동 기지제 수변공원원에서 '백투더 1990s sing with 드림축제'가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생교육원 주차장에서 펼쳐진 Hip 드림축제'에서는 전주대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아이 맥주파티와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고, 21일 효자동 호박촌 주차장에서 펼쳐진 '효자 버스커 드림축제'에서는 지역예술인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쳤다.

여기에 지난 28일 송전2동 주민센터 인근 두강 차 없는 거리 드림축제'에서는 푸짐한 경품을 건 장기자랑과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고, 축제의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혁신동 기지제 수변공원원에서 '백투더 1990s sing with 드림축제'가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는 약 두 달에 걸쳐 전주시 전역에서 펼쳐진 골목상권 드림축제로 1만 5000여 명이 참여해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 미래농업

'청년리더' 20명 탄생

한농대서 수료식 개최

전주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리더 20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6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첨단미래교육관에서 '미래농업 청년리더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총 10회 44시간 과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20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시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설계한 것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및 농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돼 청년 농업인의 농업의 이해를 넓히고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업의 환경변화 △농업 지원정책 및 기초법률 △지역작목 선택 △창업계획서 작성 △농업 기업 △스마트 농업 등 농업 기본 소양 교육과 실습 및 현장 교육으로 이뤄졌다.



전주시의회 신유정·전윤미 의원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태권도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수여

전주시의회 신유정·전윤미 의원, 전주시태권도협회로부터 받아

전주시의회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전윤미(효자2·3·4동) 의원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시태권도협회(회장 김성신)는 지난 4일 열린 제26회 전주시장기 겸 제25회 협회총회 태권도대회에서 평소 국기 태권도의 발전과 각종 태권도 행

사에 기여한 두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뜻밖의 감사패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태권도 발전과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